



농어촌공사 경남본부, 농지은행사업 올해 1490억원 투입

✎ 이은수 | ☎ 승인 2025.03.05 19:26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는 청년농업인의 영농 조기정착과,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등 맞춤형 농지지원을 위한 농지은행사업에 올해 149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세부 사업별로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1094억원 △경영화생지원 농지매입사업 231억원 △선임대후매도사업 23억원 △농지규모화사업 80억원 △과원규모화사업 37억원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22억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청년농업인이 농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매매사업 지원단가를 당초 26,700원/㎡에서 44.2% 인상된 38,500원/㎡을 지원해 청년농업인들의 농지매입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청년농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 후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대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 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선임대 후매도'사업에도 23억원을 투입해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새로 도입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또한 금년에도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 이양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손영식 본부장은 “영농진입 초기단계에 있는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해해 농지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 많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사업에 참여해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은수기자 eunsu@gnews.co.kr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 전경.



이은수